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정책

모하메드 알 쉐웨이히  
〈駐韓 사우디아라비아 大使〉

이 자료는 지난 6월 19일 외교안보원에서 韓國 中東學會 주최로 열린 「中東과 石油」 주제의 세미나에서 駐韓 사우디아라비아 大使인 Mohammed A. Al-Shewaihy氏가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註)

세계 석유를 말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빼놓을 수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의 석유수출국이 자 세계 확인매장량의 1/4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언젠가 세계의 다른 주요 유전의 매장량이 고갈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생산은 계속될 것이라는 타당성 있는 예측을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에서 뿐만 아니라 공업국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석유시장의 안정유지는 사우디 석유정책의 최대 명제이다. 이 정책은 그동안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석유가격 안정을 강력하게 지지하여 왔다. 그러면 사우디 정책의 기본명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석유정책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사우디는 석유가격 정책에 있어서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사우디는 생산자에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려면 유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합리하게 높거나 낮으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케 할 것이다.

가격이 매우 높으면 소비자의 에너지 대체를 촉진시키고 경제성장을 억제하며 따라서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석유의 세어를 축소시키게 된다. 동시에 고유가는 생산자에게 코스트가 높은 매장량의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반대로 低유가가 되면 석유소비가 촉진되고, 매장량이 급속히 고갈될 것이다. 또한 생산자들의 개발조건이 악화되어 매장량이 감소하며, 폐쇄되는 광구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더이상 자연적으로 석

유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석유는 대체불가능한 상품이다. 따라서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헛된 낭비로 석유자원을 고갈시켜서는 안된다. 석유가격이 낮아질수록 석유수출국들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불문률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가격불안정을 원하지 않는다. 불확실성과 가격불안정은 아무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이 불안정하면 석유소비국들은 산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계획수립이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조코스트를 결정짓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계획을 자신있게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석유소비국들은 사우디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석유 및 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신뢰가 없다면 석유소비국들은 에너지 부문에서 석유의 비중을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출제품과 용역의 가격을 불합리하게 인상시키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사우디가 온건한 가격정책을 견지하는 간단한 이유로서 만일 미국에 대하여 원유공급 가격을 배럴당 50달러까지 인상시킨다면 그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제품과 용역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산 Chevrolet 자동차의 생산코스트가 2만 5천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승된다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공업국가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다.

사우디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된 석유가격을 지향하고 있다. 사우디는 걸프전 후 형성된 배럴당 18달러의 유가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사우디는 석유시장의 공급과잉을 원하지 않으므로 수요에 맞도록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지난 10여년 동안 유가안정을 위한 사우디의 감산의도는 석유가격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였다. 사우디는 '80년~'81년에 1천만 b/d에 달하였던 산유량을 '84년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축시켰다. 이로 인해 사우디의 석유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사우디가 향후에도 생산량 조절을 통하여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78년 말부터 '81년 3/4분기에 이르기까지 소위 제2차 석유위기시에도 전세계적으로 다른 유종의 가격은 급등세를 나타내었지만 사우디의 원유가격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사우디로서는 기회손실이었지만 유가가 異常高價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석유의 세어를 지키려 노력하였다. 이 정책에 의해 석유상인 및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었다.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시장상황도 원유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원유가격은 재정수입을 결정짓는다. 산유국이 장래의 수입을 자신있게 예측하지 못한다면 생산량을 유지 또는 증대 시키기 위해 필요한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인가.

생산자의 견해에서 주된 관심사는 국가발전, 경제성장, 수입의 안정, 그리고 석유수요의 꾸준한 증대뿐만 아니라 판매시장의 확보이다. 따라서 생산자의 시야는 석유시장의 하류부문 참여업자들보다도 훨씬 깊고 넓다.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한 필요성에서 볼 때 생산자의 의무는 보다 절대적이며 시급을 요한다. 이러한 의무는 석유가격이 높거나 합리적인 수준에 있고, 적정가격을 유지할 때에만 이행이 가능하다.

석유의 「적정가격」이란 생산자로 하여금 시장원리에 따라 조국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다. 온건한 생산자는 석유가격이 배럴당 20달러로 상승하거나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한다고 해서 가격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사우디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가격을 결정한다. 만일 석유가격이 다른 에너지원 가격으로부터 鉸狀으로 벌어지는 추세에 있다면 생산자들은 그 가격을 좋지 않는 상태라고 인식한다. 이 때가 바로 가격을 변경해야할 시점이다.

이와 같이 생산자들은 석유가격은 지속적인 확장 경로에 있는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석유의 세어를 유지시킬 정도로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석유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세계 석유공급에서 OPEC 석유의존도 증대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인 조치도 객관성을缺하는 것이며, 생산자는 물론 소

비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 수출정책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석유산업이 강력하고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리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산유국 단독으로 시장을 좌우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한 그룹에 속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매장량이 적고 생산코스트가 높은 산유국들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석유시장의 조정자가 될 수 없다. 사우디의 경제철학이 자유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석유산업의 모든 주도적 참가국들의 지원과 협력이 없는 한 어떠한 형태의 시장관리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이 되어 석유가격이 하락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석유수출국으로서 온갖 비난을 뒤집어 쓴다. 또한 공급이 타이트하거나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이체는 OPEC의 주도국으로서 사우디가 또한 비난을 받는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진정한 협력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 석유시장은 어떠한 승자도 있을 수 없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석유시장의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곡예와도 같은 임무를 혼자 떠맡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요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시장기능에 역행하지 말고 시장안정을 보위하는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량과 수출량의 급격한 변동이 이롭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막강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하여 생산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자금확보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의 고코스트 석유생산자에게도 이롭지 못하다.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사우디는 안정된 균형상태를 지양하고 있으며, 그래야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입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석유시장의 균형은 생산자의 의지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자는 석유생산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막강한 외부의 힘인 수

요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이다. 생산자로서는 향후 5년내지 10년 후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세계에 걸쳐 하류부문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것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발전의 긴 여로에서 협력과 협동의 기초를 견지하여 왔다. 시장에서 그리고 주요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우디는 석유시장을 안정시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으로서의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다.

'79년 이후 석유시장 전개에 있어서 사우디의 주요 정책 가운데 일부로서 세계 유가상승을 초래한 공급부족을 메우기 위해 생산량을 증대시킨 사례를 들 수 있다. '79년~'81년의 고유가 시기에 사우디의 평균 산유량은 984만 b/d에 달하였다. 사우디 혼자 생산량을 증대시켰으며, 이것은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장안정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산유국들이 있다. 이들은 당시에 공급부족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였다. '82년 이후 시장의 위기상황이 완화되고, 공급초과 상황이 예견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우디는 스윙프로듀서로서 역할을 맡아 생산자의 합리적인 收入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사우디는 이러한 정책을 급락시킨 '86년까지 지속하였다. '86~'87년 사이 사우디의 원유생산량은 640만 b/d로 감소하였다.

최근 걸프전의 후유증으로 쿠웨이트와 이라크로부터 석유수출이 중지되어 또 다른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하였다. 자연히 유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었다. 유가는 투기적 상황도 가세하여 예측불허로 움직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이 또다시 공급과잉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필요한 만큼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91년 1월 사우디의 생산량은 9백만 b/d에 달하였다.

여기서 영국이 생산증대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거두지 못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비용이 석유수입 증가를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석유생산 비용은 배럴당 2달러에서 2.5달러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우디가 이익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석유시장의 안정을 위해 행동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 석유산업의 구조재조정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석유산업의 구조재조정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효율적이고 최신 시설을 갖춘 원가절감형의 석유산업을 건설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성취 가운데 하나로 불확실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석유산업을 건설하려는 왕령에 따라 '89년에 *Saudi Arabian Oil Company (SAUDI ARAMCO)*를 설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탁월한 사업가를 대표이사에 임명하는 것도 지금까지 전적으로 국영이었던 석유산업을 민간에게 보다 개방시키려는 사우디 정부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우디 아람코는 개발, 생산 그리고 원유의 국제교역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유의 판매를 위한 *Saudi Petroleum International*, 그리고 하류 부문 투자를 위한 *Saudia Refining International* 등 2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그 밖에 설립된 석유회사로는 석유제품의 국내 및 해외판매를 담당하는 *Saudi Arabian Marketing and Refining Company (SAMAREC)* 과 운할유의 국내 및 해외판매를 위한 *PETROMIN Lubricating Oil Company (PETROLUBE)* 사 등이 있다.

이들 모든 회사에서 대대적인 원가절감 및 경영합리화 운동이 있었으며,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또 다른 성취로는 원유수출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국내시장의 원유소비를 최적화하는 것이 었다.

정유공장에 대한 원유공급의 국제가격 *Invoice* 시스템도 제도화되어 있다. 이것은 수출용 정유공장에 관한 한 원유 *Invoice* 가격이 전처럼 네트백 공식에 의하지 않고 현물 연계 가격공식에 기초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용 정유 공장이 현재 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효율적 경영과, 경쟁력 그리고 수익이 원유 가격 하락에 의존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국제제품 시장과 관련하여 기간계약에 따른 수출

물량 이상으로 입찰을 통한 제품수출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밖에 국내정제 시설의 시설고도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매장량의 신규개발도 착수되고 있다.

### 對OPEC 정책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정책에서 OPEC를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사우디는 OPEC, 非OPEC을 막론하고 3,15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 보유국이다.

석유시장에서 OPEC의 역할을 이해한다고 해서 OPEC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OPEC가 창설된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OPEC 창설의 주요 목적은 석유생산량을 조절하여 세계 유가를 조종하고, 교역에 있어서 회원의 이익 증진과 선진 소비국과의 교역 확대 등이다. 그러나 OPEC 자체가 사업체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히 밝혀 두어야 할 점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독으로 석유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 왔으며, 마찬가지로 OPEC도 세계 석유공급의 안전판은 아닐 것이다. OPEC가 불안정한 석유시장을 치유할 수 있는 마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OPEC는 창설 초기부터 석유수출 및 생산 실체로서 잘못 인식되어 왔다. 회원국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가 구현하는 이념을 신봉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OPEC 회원국들간의 협력이 깨져 세계 유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석유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희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85년까지 OPEC과 非OPEC 산유국간의 협력부재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85년 7월에 열린 OPEC회의에서 OPEC 결의를 일부 국가는 준수하고 또 일부 국가는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모든 규칙들이 준수되지 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세어를 확보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 후에도 생산자들 간에는 여전히 협조 부재가 지속되었다. 막대한 양의 원유가 현물

시장 연계가격으로 시장에 계속 유입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침식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나서지 않을 수 없었으며, 원유수출시 네트백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정책을 채택하였다. 생산자들간의 협조부재는 '86년의 유가 급락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석유가격의 변동은 특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경험한 바 있다. 되풀이 하여 강조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혼자만의 힘으로는 석유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그것은 사우디에겐 크나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사우디는 희생을 감수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사우디혼자 유가급변을 수용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위하여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OPEC가 세계 석유 공급의 안전관 일수 없기에 OPEC과 다른 석유수출국들은 가격 및 생산 수준에 관하여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간의 협력은 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주요 소비국들의 에너지 안정공급 유지를 위하여 요구된다.

그러나 어렵게 깨달은 교훈이 훌륭한 지식이 되는

것이다. 석유시장은 OPEC에 규율, 중용, 그리고 장기간의 적응의 미덕을 가르쳤다. 또한 경제의 기초원리인 수요 공급의 법칙도 깨닫게 하였다. 한편 非OPEC 산유국들은 OPEC의 희생위에 무임승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들은 시장 안정 유지를 위하여 OPEC과 협력의 필요성도 인식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OPEC는 가격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기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의 목표에 부응하여 가격과 생산쿼터 준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공적인 가격은 OPEC 생산시스템 내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에 대해 두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즉 생산 쿼터제도의 개선과 함께 생산상한을 시장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세계의 석유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계속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 □건강교실□

# 에어콘과 건강

에어콘이 켜진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머리가 아프고 눈이 충혈되며 목이 마르고 따끔따끔 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빌딩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빌딩증후군이란 밀폐된 환경(주로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을 가진 건물)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 피로감, 눈·코 및 인후부의 자극증상, 콧물 및 코막힘 등이어서 이를 잘 낮지 않는 여름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무실에서 나가면 증상이 좋아지고 들어오면 다시 심해지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약 24%가 이 빌딩증후군을 가

지고 있는데, 이는 자연환기를 하는 빌딩의 3-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 이런 증상 때문에 약 20%의 근로자가 일에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전체 근로자가 하루에 약 2-6분씩 노동력을 손실받는 것과 같아 환기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연료 절감 효과보다 훨씬 많은 비용손실을 가져온다.

빌딩증후군의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에어컨이 공기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수분을 응결시켜 실내 습도를 낮춤으로써 점막이 마르고 운동섬모의 기능이 억제되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담배에 의한 오염, 환기의 불충분으로 인한 탄산가스의 과다배출 등도 원인이 될 것이다.

빌딩증후군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며 예방이 최선이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밀폐된 빌딩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소한 1시간에 한번씩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야 한다.